2009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야기의 교훈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은?

① 타고난 재능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 하는 친구
② 부상을 숨기고 계속 경기에 출전하는 운동선수
③ 입사 시험에 실패한 후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구직자
④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촬영을 하는 영화감독
⑤ 자녀의 소질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는 부모

2. (물음) 여학생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 )

① 서로서로 지킬 건 지켜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
② 과정보다는 결과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③ 예외를 지나치게 인정하면 원칙이 무너진다는 거지?
④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규칙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⑤ 용서의 미덕을 베푼다는 게 어렵고도 힘든 일이라는 거지?

3. (물음) 강연의 내용을 수용한 회사 사장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① 급여를 인상하여 사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겠군.
② 근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겠군.
③ 능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여 사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겠군.
④ 사내 교육을 강화하여 사원들이 자기 업무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겠군.
⑤ 각 부서의 인원을 늘려 사원들이 업무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 주어야겠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발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②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상대방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③ 새로운 화제를 끌어들여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⑤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5. (물음) 선행학습의 문제점으로 언급되지 <u>않은</u> 것은?

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다.
②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
③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④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의 생각	연상한 내용
①	㉠ 힘들게 산에 가는 것보다 그냥 놀이동산에 가면 좋을 텐데.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②	㉡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게 편하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③	㉢ 그동안 철수한테 신세 진 게 많으니 철수 의견에 무조건 찬성해야겠어.	공적(公的)인 일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한다.
④	㉣ 우리 반 아이들은 단합이 잘 안 되니 어느 곳으로 가도 재미없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⑤	㉤ 산에 가본 적도 없는 내가 과연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보기>의 조건을 모두 살린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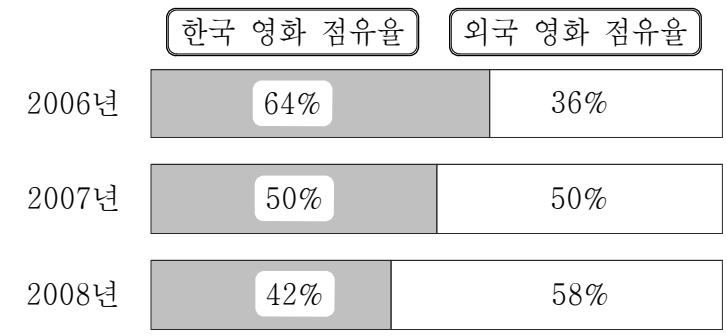
- ○ 대조적 표현을 사용할 것
- ○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할 것
- ○ 독서를 권유하는 내용을 담을 것

① 인터넷!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②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가면
책이 나를 반갑게 맞아 줍니다.
③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독서는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④ 정보의 바다로 안내하는 인터넷!
유혹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인터넷!
⑤ 유해한 게임은 영혼을 갉아먹지만
좋은 책은 영혼을 살찌웁니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영화의 현실'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의 상영관 점유율 추이



< 출처 : 한국 영화 연감 >

(나)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 및 수익 구조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제작 편수	105편	109편	112편
수익을 낸 작품의 수	19편	13편	7편
작품 당 평균 손익	11.5억 원 적자	17.9억 원 적자	16.4억 원 적자

< 출처 : 한국 영화 연감 >

(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화 제작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연간 적정 제작 편수인 80여 편보다 훨씬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다 보니 수준 이하의 작품도 많습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한국 영화 전체가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영화 평론가 ○○○ –

① (가)를 활용하여, 한국 영화의 상영관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한다.
② (나)를 활용하여,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을 낸 작품의 수는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③ (다)를 활용하여, 제작 편수를 늘리기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여야 관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수준 이하의 한국 영화가 한국 영화의 상영관 점유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⑤ (가), (나), (다)를 활용하여, 한국 영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 영화에 맞설 정도의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9. <보기>와 같이 '김치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Ⅰ. 서론
  1. 세계 각국에서 김치에 대한 관심의 증가 ····· ㉠
  2. 김치를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

Ⅱ. 본론
  1. 김치 세계화의 의의
    가.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 제고
    나. 경제적인 파급 효과
    다.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 ㉡
  2. 김치 세계화의 걸림돌
    가. 유통 기한이 짧음
    나. 자극적인 맛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기피 ····· ㉢
    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부족
  3. 김치 세계화를 위한 방안
    가. 김치 박물관의 건립 ····· ㉣
    나. 김치의 맛을 각 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
    다. [㉤]

Ⅲ. 결론
  김치의 세계화에 대한 전망과 당부

㉠ : 세계 각국에서 김치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한다.

㉡ : 'Ⅱ-1'의 하위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 너무 매워서 김치를 먹을 수 없었다고 말한 외국인과의 인터뷰를 자료로 제시한다.

㉣ : 'Ⅱ-2-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김치 선호도 조사'로 수정한다.

㉤ : 'Ⅱ-2-다'를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 수립'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다음은 여행 감상문의 초고이다.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학교 졸업식을 치른 다음 날 우리 가족은 여행을 떠났다.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동생과 나는 국외로 나가자고 부모님을 졸랐다. ㉠ 하여튼 부모님은 호화로운 국외 여행보다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느껴 보는 여행을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여행지를 국내로 ㉡ 가정하였다.

시원하게 펼쳐진 시골 들녘을 대하니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이것은 숨 막힐 것 같은 도시의 빌딩 숲을 ㉢ 벗어나기 위해 얻은 첫 번째 기쁨이었다.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국숫집에 들렀는데, 그 곳 국수 맛은 내가 먹어 본 것 중에 최고였다. ㉣ 여행은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지금도 가끔 그 날 먹은 국수 맛을 ㉤ 떠올려 보았다.

① ㉠은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하지만'으로 바꾼다.
② ㉡은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결정하였다'로 바꾼다.
③ ㉢은 호응을 고려하여 '벗어나면'으로 고친다.
④ ㉣은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⑤ ㉤은 시간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고려하여 '떠올리곤 한다'로 고친다.

11. <보기1>을 참조하여 <보기2>의 ⓐ ~ ⓕ 중,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보기1>

'이', '그', '저'는 대상과 말하는 이, 듣는 이 사이의 거리에 따라 선택되는 단어이다. '이'는 말하는 이에게 좀 더 가까운 대상을, '그'는 말하는 이에게는 멀지만 듣는 이에게 가까운 대상을, 그리고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멀리 떨어진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보기2>

영미 : ⓐ 이 책은 너무 따분해. 수철아, ⓑ 그 책 다 읽었니?
수철 : ⓒ 이 책을 다 읽으려면 아직 멀었어. ⓓ 그 책이 재미없으면 ⓔ 저 책을 읽어 봐.
영미 : ⓕ 저 책은 이미 읽어 봤어.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2. <보기>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과제 : '오르다'가 들어간 예문을 찾아보고, 그 문장에 사용된 '오르다'를 유의어, 반의어로 정리해 보시오.

	예문	유의어	반의어
①	살이 오르다.	찌다	빠지다
②	차에 오르다.	타다	내리다
③	기세가 오르다.	등등하다	꺾이다
④	성적이 오르다.	향상되다	떨어지다
⑤	약 기운이 오르다.	상승하다	내려가다

정리하면,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란 구절을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쪽으로 적는 것이 어법에 맞는지(즉 뜻을 파악하기 쉬운지) 살펴 그에 따라 적고 둘째, 어느 쪽으로 적든지 어법에 맞는 정도에(뜻을 파악하는 데에) 별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컨대 '붙이다(우표를 ~)'와 '부치다(힘이 ~)'에서 전자는 동사 어간 '붙-'과 의미상의 연관성이 뚜렷하여 '붙이-'처럼 적어 줄 때 그 뜻을 파악하기 쉬운 이점이 있으므로 소리와 달리 '붙이다'로 적고, 후자는 전자와 달리, 굳이 소리와 다르게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소리대로'의 원칙에 따라 '부치다'로 적는 것이다.

13.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② 한글 맞춤법의 제정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③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④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맞춤법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⑤ 한글 맞춤법 규정을 해설하면서 우리말의 우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 나타나 있다. 이 조항은 한글 맞춤법을 적용하여 표기하는 대상이 표준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어가 정해지면 맞춤법은 이를 어떻게 적을지 결정하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표준어를 글자로 적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요, 또 하나는 소리 나는 것과는 다소 멀어지더라도 눈으로 보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적는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이 상충되는 면이 있는 듯하나 한글 맞춤법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즉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제1항의 구절은 바로 이 두 방식의 절충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1항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과,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적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적는 것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적는 것인가? 그것은 문장에서 뜻을 담당하는 실사(實辭)를 밝혀 적는 방식일 것이다. 예컨대 '꼬치, 꼬츨, 꼳또'처럼 적기보다 실사인 '꽃'을 밝혀 '꽃이, 꽃을, 꽃도'처럼 적는 것이다. '꼬치'와 같이 적는 방식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글자로 적기에는 편할 수 있다. 그러나 뜻을 담당하는 실사가 드러나지 않아 눈으로 뜻을 파악하기에는 큰 불편이 따른다. 체언과 용언 어간은 대표적인 실사이다. 실사를 밝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적는다는 것은 체언과 조사를 구별해서 적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이다.

1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② 어법을 고려해 적으면 뜻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③ 실사를 밝혀 적는다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의미이다.
④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한글 맞춤법의 예외 조항이다.
⑤ 표준어를 글자로 적을 때에는 소리와 어법 두 가지를 고려한다.

15.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놀이'는 '놀다'와의 의미적 연관성이 있어 '노리'라고 적지 않고 '놀이'로 적는 것이겠군.
② '먹어', '먹은'을 '머거', '머근'처럼 적지 않는 이유는 '먹다'의 '먹-'이 실사이기 때문이겠군.
③ '국물'을 '궁물'로 적지 않는 이유는 '궁+물'보다 '국+물'이 의미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겠군.
④ '물이 얼다'의 '얼음'을 '어름'으로 적지 않는 이유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의미 파악이 쉽기 때문이겠군.
⑤ '반드시(~이겨라)'를 '반듯이(~앉아라)'와 구별하여 적는 것은 '반드시'가 '반듯하다'의 '반듯-'과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고 여겨서 그랬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도자기에는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도자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혹은 그것을 만든 장인의 예술 감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갖게 된다. 도자기 가운데 고려청자는 매우 귀족적이며 장식적이다. 그 수요자가 왕실과 중앙 귀족이었으므로 도자기 형태나 문양에 그들의 취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조선 분청사기는 왕실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이 사용하였다. 물론 수요층에 따라 도자 양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분청사기는 일상생활 용기로 널리 사용되었으므로 순박하고 서민적이었다.

㉠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은 흔히 형태, 색, 문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되곤 한다. 흐르는 듯한 형태의 유려함, 비취옥과 같은 비색(翡色), 그리고 자연에서 소재를 얻은 문양이 그것이다. 귀족들의 취향을 반영한 고려청자에는 세련된 곡선미가 담겨 있다. 여기에 학이 창공을 날아가는 모습과 같은 우아하고 섬세한 문양이 신비한 비색과 잘 어우러져 있다. 그런데 고려청자에는 도공의 창조적 개성미는 드러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려청자는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관요(官窯)*에서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 속에서 이름 없는 도공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분청사기는 '청자 태토(胎土)*로 빚은 몸체에 분을 바르듯이 백토를 ⓐ 입힌 사기그릇'을 말한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 귀족이 몰락하고 지방의 중소 지주였던 사대부 성리학자가 등장하던 시기에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차 서민층에까지 쓰임이 확대되면서 형태도 매우 안정되고 튼튼하게 변해갔고, 문양도 활달하고 자유분방하게 변해가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 도공의 독창적 개성미가 더해져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분청사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분청사기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간 가마인 민요(民窯)에서 이전보다 자유로운 여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분청사기조화수조문편병]

'분청사기조화수조문편병'을 보면, 아무렇게나 그어 나간 듯한 경쾌한 선들을 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함과 독창적 개성미가 엿보인다. 또한 투박하지만, 장인의 예술 감각과 창조적 조형 의지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분청사기에서는 고려청자가 갖는 깔끔하고 이지적인 느낌과는 다른 수더분함과 숭늉 맛 같은 구수함이 느껴진다. 분청사기의 자유분방함과 수더분함 속에서 고려청자와는 또 다른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 관요 : 관청에서 경영하던 가마.
** 태토 : 바탕흙.

16.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수요층의 특징
② 고려청자와 분청사기의 원료와 제작 과정
③ 고려청자와 분청사기에 담긴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
④ 고려청자와 분청사기에 나타난 문양의 상징적 의미
⑤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

17.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더 접한 뒤에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서양 미술사에서 화려한 르네상스 미술이 꽃 필 수 있었던 것은 예술가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후원해 준 패트런(patron : 후원자)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예술가로 명성을 날린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화가의 배후에도 막강한 패트런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예술가들의 작품은 교회와 귀족, 즉 패트런의 주문에 맞춰 제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 의지를 펼치기보다는 패트런의 취향에 맞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르네상스 이후 예술가들이 패트런의 보호를 떠나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고유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나아가 독창적 개성을 표출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① 고려청자의 도공과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는 주문자의 취향에 맞춰 작품을 제작했겠군.
② 르네상스 이후의 화가와 달리, 분청사기를 만든 도공은 이전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작업을 했겠군.
③ 위대한 예술가를 후원했던 패트런처럼 고려 귀족들은 도공이 예술가로 명성을 남기도록 적극 후원했을 거야.
④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 미술의 변화 과정처럼 고려청자에서 분청사기로의 변화 과정도 종교적 영향을 받았겠군.
⑤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와 분청사기를 만든 도공은 자신들의 예술 의지를 담은 독자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 거야.

18. 위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민요에서 만들어졌다면, ㉡은 관요에서 만들어졌다.
② ㉠이 투박하지만 안정된 형태라면, ㉡은 세련되지만 불안정한 형태이다.
③ ㉠이 수더분하고 감성적인 느낌이라면, ㉡은 깔끔하고 이지적인 느낌이다.
④ ㉠의 수요층이 귀족에 국한되었다면, ㉡의 수요층은 사대부들에 국한되었다.
⑤ ㉠이 우아하고 섬세한 문양이 특징이라면, ㉡은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문양이 특징이다.

1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엄마가 울고 있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② 추녀와 현판에 모두 돌아가며 금박을 입혔다.
③ 그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④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⑤ 그 일은 그의 권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란하던 수숫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개졌다.

수숫단 속을 벗어 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히었다. 걷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이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그 뒤로는 소녀의 모습이 뵈지 않았다.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뵈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 몰래 5학년 여자 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뵈지 않았다.

그 날도 소년은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 쪽 개울둑에 소녀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

[A]
소년은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 동안 앓았다."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그 날, 소나기 맞은 탓 아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인제 다 났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 참, 그 날 재밌었어……. 그런데 그 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 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년은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생각해 냈다. 그 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업힌 일이 있지? 그 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 소년은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준다. 소년은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曾祖)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년은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중략)…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 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겟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그 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 "허, 참, 세상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 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田畓)을 다 팔아 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폿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曾孫)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더군. 지금 같아선 윤 초시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앤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 황순원, 「소나기」 –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물 간의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② 여운을 남기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③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④ 대체로 호흡이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21.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었다고 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녀를 보는 순간,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 동안 앓았다."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 보였다. 걱정이 밀려왔다.
"그 날, 소나기 맞은 탓 아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나는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인제 다 났냐?"
소녀의 눈길을 피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도……."
소녀의 힘없는 대답에 가슴이 찡했다.
"그럼, 누워 있어야지."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 참, 그 날 재밌었어……. 그런데 그 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의 눈이 스웨터의 얼룩진 부분으로 내려가자, 내 눈은 저절로 그리로 따라 갔다. 검붉은 진흙물 같았다.

① 새로운 사건을 추가하여 결말을 암시하기 위해
② 장면을 생략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③ 사건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④ 인물이 자신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⑤ 서술자의 개입을 약화시켜 사건 진술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소녀는 불어난 도랑물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② ㉡ : 소년은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소녀의 안부를 궁금해 하고 있다.
③ ㉢ : 소년은 소녀에게 무심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④ ㉣ : 아버지는 소녀의 죽음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고 있다.
⑤ ㉤ : 소녀는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3.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에 <소나기 문학관>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위 글의 [ ] 한 부분을 바탕으로 쓴 홍보문이다. ⓐ~ⓓ 중,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담아낸 것끼리 묶은 것은? [3점]

<소나기 문학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곳에서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먼저 ⓐ <u>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넜던 [도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년과 소녀는 심리적으로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u> 여러분은 이곳에서 소년, 소녀의 아바타를 얻게 됩니다.

ⓑ <u>소녀를 잊으려 애쓰던 소년은 주머니 속에 든 [흰 조약돌]을 만지작거렸죠.</u> 이곳에서 흰 조약돌을 모으면 여러 아이템 중 예쁜 옷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 <u>소녀는, 소년을 사랑하면서도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이 [대추] 한 줌으로 받아들였습니다.</u> 이곳에서는 가방을 받게 됩니다.

ⓓ <u>[갈꽃]도 준비했습니다.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보세요.</u> 갈꽃 한 움큼을 잡으면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곳 <소나기 문학관>은 소설의 감동과 함께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가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곳입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이 열리기 12시간 전에 황하 강 상류 지역에서 생긴 비구름이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기상 당국은 공군에 요청하여 비행기 두 대를 띄웠다. 그 비행기들은 상공에 화학 물질을 ⓐ <u>살포하여</u> 비구름이 베이징에 이르기 전에 비를 내리게 하였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인공강우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인공강우 기술이란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공강우의 구체적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비가 내리는 원리부터 이해해야 한다. 중위도 지방의 경우 공기 덩어리가 높이 상승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구름이 된다. 구름은 수증기와 작은 물방울 및 얼음 알갱이인 빙정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때 빙정은 수천에서 수만 개의 수증기 입자를 끌어들여 커다란 빙정이 되는데, 이렇게 커진 빙정은 무거워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는 도중 대기의 온도가 높으면 녹아서 비가 되고, 낮으면 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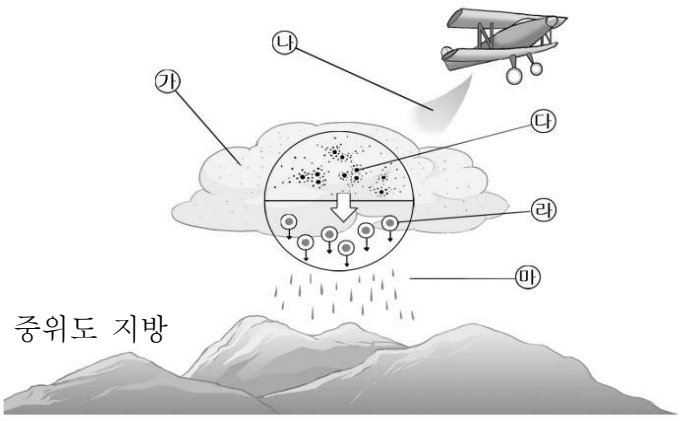
비나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 속에 빙정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빙정은 중심 물질이 있어야 더 잘 ⓑ <u>형성되는데</u>, 이러한 중심 물질을 구름씨라 한다. 구름 속에는 순수한 수분 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서 나온 소금 입자나 식물의 포자,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물질, 각종 먼지 등도 함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구름씨 역할을 한다. 그런데 구름 속에 빙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나 눈으로 내릴 수 없다. 이때 구름 속에서 빙정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구름 속에 구름씨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뿌려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것이 인공강우법이다.

중위도 지방에서 인공강우는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한다. 요오드화은은 구름 속에서 구름씨의 역할을 하고, 드라이아이스는 구름 속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 빙정이 많이 생겨나게 한다. 하지만 인공강우 기술도 아무 구름에나 적용할 수는 없다. 수분을 많이 ⓒ <u>함유하지</u> 않은 구름은 아무리 구름씨를 뿌려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강우 기술은 농작물의 재배 수익을 ⓓ <u>증가시키고</u>,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 ⓔ <u>투입한</u>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 <u>중국의 경우에도 베이징 올림픽 때 실시한 인공강우의 여파로 베이징 시와 주변 지역이 한때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고 한다.</u>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연 현상을 조절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4.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 : 비가 내릴 정도로 빙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② ㉯ : 비행기를 이용하여 구름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을 구름에 살포한다.
③ ㉰ : 살포된 물질이 구름 속에 수분을 공급한다.
④ ㉱ : 구름 속 빙정들이 커지게 되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진다.
⑤ ㉲ : 빙정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의 온도가 높으면 비가 되고, 낮으면 눈이 된다.

25. 위 글과 관련지어 <보기>의 자료를 읽은 후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3, 4년을 주기로 한 번씩 극심한 가뭄 피해를 당했으므로 삼국시대부터 조정·지방관청·민간을 막론하고 '기우제'가 성행하였다. '기우제'를 올릴 때는 산꼭대기에 제단을 만들고 곡식이나 동물 등의 제물을 며칠 동안 태우면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는데, '기우제' 끝에 비가 내렸다는 기록을 문헌에서 자주 살펴 볼 수 있다.

① "기우제를 지내는 산꼭대기와 산 아래 지역의 온도 차이로 인해 비가 내린 것은 아닐까?"
② "제물을 태울 때 발생한 연기나 먼지가 구름씨의 역할을 해서 비가 내린 것일 수도 있겠군."
③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기 속의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어."
④ "구름 속에서 응결한 수증기 입자들이 대기의 따뜻한 공기와 만났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은 아닐까."
⑤ "제물을 태우면서 발생한 열이 공기 중의 수증기의 발생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어."

26. ㉠의 이유를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형과 기후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공강우법을 썼기 때문에
② 대기에 인공적으로 살포한 물질로 인해 비구름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③ 구름 속에 살포한 물질이 오히려 대기 속에서 수증기의 형성을 방해했기 때문에
④ 특정 지역에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서 해당 지역에서 비를 내릴 구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⑤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해서 해당 지역의 구름에 구름씨가 사라졌기 때문에

27. ⓐ~ⓔ를 순우리말로 바꿀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뿌려
② ⓑ : 만들어지는데
③ ⓒ : 내놓지
④ ⓓ : 늘리고
⑤ ⓔ : 들어간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처럼 산골에 묻혀서 사는 덜된 사람들은 둘레의 지극히 사소한 일들 속에서 삶의 잔잔한 기쁨을 찾는 수가 있다. 이를 테면, 고무줄로 된 허리띠가 탄력을 잃고 느슨해져서 자꾸만 바지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성을 가셔 하다가, 어느 날 새 허리띠로 갈아 낀 다음의 그 든든함. 이것도 조그만 행복일 수 있다. 부엌문을 여닫을 때마다 삐이그덕거리는 그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떠올라 초 토막을 녹여서 돌쩌귀에 바른 뒤부터는, 아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여닫히는 걸 보고 ㉠ 빙그레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 또한 내 조그마한 행복이다.

…(중략)…

우리 불일의 지붕에는 많은 새들이 나와 함께 산다. 7년 전 이 암자를 다시 지을 때 연함(椽檻) 때문에 속이 좀 상했었다. 연함이란, 서까래 끝의 평교대 위에 기왓골을 받치기 위해, 암키와가 놓일 만하게 반달 모양으로 에어낸 나무를 말한다. 이 연함을 두고 목수와 와공(瓦工)이 서로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미루다가 결국 연장을 가진 목수가 파게 되었는데, 목재를 잘못 골라 기와와 연함 사이가 골마다 틈이 생기게 되었다. 이 틈에 산새들이 들어와 살게 된 것이다. 주로 할미새와 비비새가 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군불을 지피러 부엌에 들어가려다가 새 새끼가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솜털이 보얀 비비새 새끼였다. 새집에서 굴러 떨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서둘러 나는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 안쓰러워 손으로 만지려고 하니 입을 벌려 짹짹거리면서 비실비실 피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느새 어미 새 두 마리가 가까이 날아와 짹짹거리면서 나를 경계했다.

군불을 지피고 나서도 어린 새의 일에 마음이 쓰여 한쪽에 돌아서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미 새가 이따금씩 날벌레를 물어와 새끼에게 먹이는데 바로 먹이지 않고 몇 차례씩 입에 넣

었다 빼었다 하면서 조금씩 나는 연습을 시켰다. 두 마리 새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기를 꼬박 이틀을 하더니 마침내 비상(飛翔), 새끼 새가 제 힘으로 날아가게 되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나도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크게 쉴 수가 있었다. 새들의 지극한 모성애에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꾀꼬리, 뻐꾸기, 소쩍새, 밀화부리 같은 철새들이 제철에 이르러 첫인사를 보내올 때, 그 설레는 반가움은 산에서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수첩에는 이런 일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 해마다 5월 초에 꾀꼬리와 뻐꾸기는 하루 이틀 사이를 두고 찾아온다. 그런데 금년에는 뻐꾸기가 한 주일이나 늦게 오는 바람에 무슨 일인가 하고 몹시 궁금했다. 5월 11일 차밭에서 차를 따다가 뻐꾸기의 첫 인사를 받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목청으로 밀화부리가 노래할 때 나는 곧잘 휘파람으로 화답을 해준다. 꾀꼬리도 휘파람으로 소리해주면 제 친구인가 해서 자꾸만 가까이 날아오면서 노래를 한다. 이 또한 살아가는 기쁨이 아닌가.

– 법정, 「맑은 기쁨」 –

(나)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암(鄕闇)*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노니노라
ⓐ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 있으랴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띠집 : 초가집.
** 어리고 향암 : 어리석은 시골뜨기.

(다) 띠집은 대숲길로 이어져 있고 茅齋連竹逕
㉤ 가을날 햇살은 곱기도 하다. 秋日艷晴暉
열매가 익어서 축 처진 가지 果熟擎枝重
참외도 달리지 않은 끝물의 넝쿨. 瓜寒著蔓稀
나는 벌은 쉴 새 없이 잉잉거리고 遊蜂飛不定
오리는 한가로이 기대어 조네. 閒鴨睡相依
몸과 맘 너무나 고요하구나. 頗識身心靜
ⓑ 물러나 살자던 꿈 이루어졌네. 棲遲願不違

– 서거정, 「추풍(秋風)」 –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을 예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②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고 있다.
③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지나온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9. (가)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감상의 주안점'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심 내용	감상의 주안점
1문단	글쓴이가 산골에서 살아감	글쓴이가 지향하는 인생관은 무엇인가? ····· ㉮
2문단	산새들이 암자의 지붕에서 살게 됨	글쓴이가 대상과 함께 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
3문단	새끼 새가 땅에 떨어짐	글쓴이와 대상 간의 조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 ㉰
4문단	새끼 새가 날게 됨	글쓴이가 얻게 된 교훈은 무엇인가? ····· ㉱
5문단	철새들이 산골에 찾아옴	글쓴이의 대상에 대한 태도와 정서는 어떠한가? ·····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보기>는 (나)의 화자의 사고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속세에서의 삶(A) ⟷ 자연에서의 삶(B)

① '남들'은 (A)를 선호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로군.
② '내 분(分)인가 하노라'는 (A)와 (B)를 비교한 후 얻은 화자의 판단이로군.
③ '보리밥 풋나물'로 볼 때, (B)는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난 상황이로군.
④ '먼 뫼'는 (B)에서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로군.
⑤ '그리던 님'은 화자가 (A)에 미련이 남았음을 암시하는군.

3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달리, ⓑ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② ⓑ에 비해, ⓐ가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삶이다.
③ ⓐ는 현실 도피를, ⓑ는 현실 극복을 의미한다.
④ ⓐ는 학문 수양과, ⓑ는 자아 성찰과 관련이 있다.
⑤ ⓐ와 ⓑ는 모두 화자의 재능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32. ㉠ ~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을 체험하고 그 이치를 깨닫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문학 작품에서 자연의 질서 체계로 들어가 흥겨움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 소비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어떤 게임기를 사자 자신도 그 게임기를 사겠다고 결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그 상품을 쓰는 사람들이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네트워크 효과의 대표적인 것으로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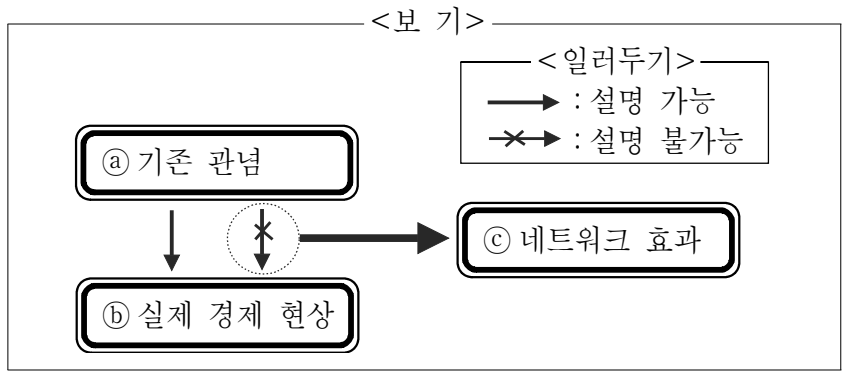
[개] 어떤 사람들이 특정 옷을 입으면 마치 유행처럼 주변 사람들도 이 옷을 따라 입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상품을 사는 것을 '유행효과'라고 부른다. 유행효과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예측보다 더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옷의 가격이 4만 원일 때 5천 벌의 수요가 있고, 3만 원일 때 6천 벌의 수요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유행효과가 있으면 늘어난 소비자의 수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 3만 원으로 떨어지면 수요가 6천 벌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8천 벌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에, 특정 상품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품의 소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들만이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을 사지 않는 것을 '속물효과'라고 부른다. 속물효과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예측과는 달리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옷의 가격이 비싸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가 예측보다 적게 늘어난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심리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호와 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생각이 빗나갈 때가 많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하비 라이벤스타인(Harvey Leibenstein)이 이론적인 기초를 세운 네트워크 효과는 이런 실제 경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33. <보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 효과' 이론이 세워졌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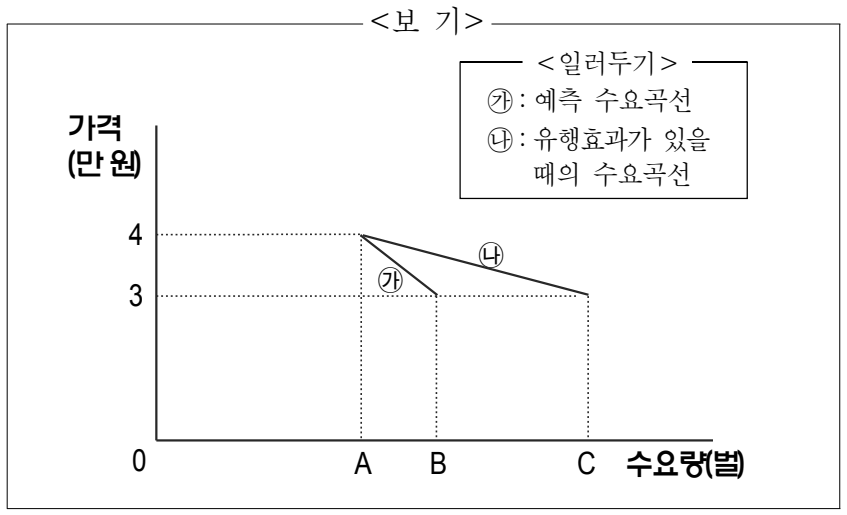
<보 기>



① ⓐ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겠군.
② ⓑ는 ⓐ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현상이겠군.
③ ⓒ는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보겠군.
④ ⓒ는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
⑤ ⓒ는 ⓐ로는 설명할 수 없는 ⓑ를 설명하기 위해 세워졌겠군.

34. [가]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을 때, 유행효과에 의해 만들어진 '수요 변화량'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① A와 B를 더한 양
② A와 C를 더한 양
③ B와 C를 더한 양
④ B에서 A를 뺀 양
⑤ C에서 B를 뺀 양

35. '속물효과'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은아는 값을 내린 단골 고급 식당에 손님이 몰리자 다른 고급 식당으로 바꿨다.
② 정현이는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디자인이 더 예쁜 다른 시계로 바꿨다.
③ 동원이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보다 성능이 더 좋은 자동차로 바꿨다.
④ 철민이는 주위 친구들이 유명한 운동화를 신자 자신도 그 운동화로 바꿨다.
⑤ 현주는 명품 가방을 애용해왔지만 가격이 저렴한 다른 가방으로 바꿨다.

36. ㉠의 '에'와 그 쓰임이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바람<u>에</u> 꽃이 졌다.
② 옷<u>에</u> 먼지가 묻었다.
③ 이 보약은 몸<u>에</u> 좋다.
④ 내 동생은 방금 학교<u>에</u> 갔다.
⑤ 순이는 아침<u>에</u> 공부하러 도서관으로 갔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좋아하는 팬들은 그의 환상적인 바나나킥에 열광한다. 수비벽을 뚫고 회전하면서 골문 안으로 휘어 들어가는 공은 문지기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그물을 흔든다. 베컴이 찬 공이 휘어가는 데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일까?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공이 휘어지는 현상을 처음 설명한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하인리히 마그누스이다. 이 현상은 그가 날아가는 포탄이 휘어져 가는 것을 연구하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마그누스 효과'라고 부른다. 마그누스 효과는 회전하는 물체가 물체 주변의 압력차에 의해 휘어져 날아가는 현상으로, ㉠'속도가 빠른 쪽의 유체* 압력이 느린 쪽의 유체 압력보다 낮다.'는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할 수 있다.

공이 날아갈 때는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흐름이 생긴다. 만약 공이 회전하지 않고 날아가면 공의 양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가 같아 압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면, 주위의 일부 공기를 끌고 가면서

공 주변에 새로운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때 날아가는 공 주변에서는 공을 따라 도는 공기의 흐름과 공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이 서로 합해진다. 가령, 공의 오른쪽 측면을 차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날아갈 때를 생각해 보자. 그림에서 보듯, 공의 오른쪽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공기가 부딪쳐 저항력이 생기면서 공기의 흐름이 느려진다. 반면에 왼쪽에서는 두 가지 공기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 더해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빨라진다. 그러므로 베르누이 정리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의 흐름이 느린 오른쪽의 공기 압력이 높아지고 왼쪽의 공기 압력이 낮아진다. ㉡힘은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므로 공은 왼쪽으로 휘면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나나킥을 베르누이 정리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의 표면에 작용하는 공기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공의 속도가 빠를 때는 공 주변에 작은 소용돌이인 난류(亂流)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공 양쪽의 공기의 속도 차이가 작아져서 압력 차이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져 공 주변의 난류가 사라지면 압력 차이가 커지므로 공이 휘면서 날아간다. 실험 결과 공의 속도가 108㎞/h보다 빠르면 난류가 발생한다고 한다. 만약 어떤 축구 선수가 120㎞/h의 속력으로 공을 차는 경우, 처음에는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108㎞/h 이하로 떨어지면 휘면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베르누이 정리와 난류에 관한 역학(力學)을 이용하면 바나나킥의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축구에도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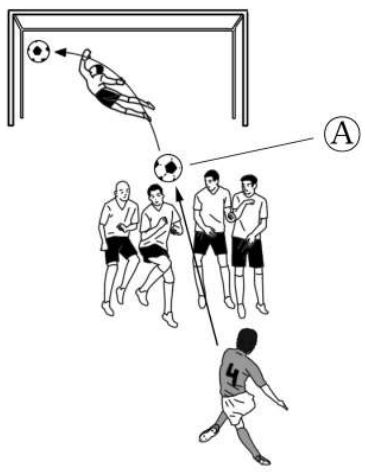
* 유체 : 액체와 기체를 아울러 이르는 말.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다양한 이론을 통해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있다.
②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③ 상반되는 두 이론을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여 기존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⑤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특정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3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공을 찬 선수는 정지해 있는 공의 오른쪽 측면을 찼을 것이다.
② 공이 Ⓐ지점을 통과한 뒤부터는 공 주변에 난류가 생겼을 것이다.
③ 공이 Ⓐ지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속도가 108㎞/h 이상이었을 것이다.
④ 공이 휘어지며 날아가는 동안 공의 왼쪽에 가해지는 공기의 압력은 오른쪽에 비해 낮을 것이다.
⑤ 공이 휘어지며 날아가는 동안 공의 오른쪽에서는 저항력이 작용하여 공기의 흐름이 왼쪽보다 느릴 것이다.

39. 비행기가 뜨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 ㉡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① 비행기의 동체를 가벼운 소재로 제작해야 한다.
②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체를 제작해야 한다.
③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도록 추진력이 강한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④ 지면과의 마찰력을 견딜 수 있도록 타이어를 튼튼하게 제작해야 한다.
⑤ 비행기의 날개 아래쪽의 공기 압력이 위쪽보다 높을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흠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 「청포도」 –

(다) 강변에서
내가 사는 작은 오막살이집까지
이르는 숲길 사이에
어느 하루
마음먹고 나무계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밟으면 삐걱이는
㉣ 나무 울음소리가 산뻐꾸기 울음
소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이 계단을 밟고
내 오막살이집을 찾을 때
있겠지요
설령 그때 내게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신이 찾아와
자, 이게 네가 그 동안 목마르게 찾았던 그 물건이야
하며 막 봇짐을 푸는 순간이라 해도
난 당신이 내 나무계단을 밟는 소리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는 신과는 상관없이
강변 숲길을 따라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 곽재구, 「계단」 –

40. (가)~(다)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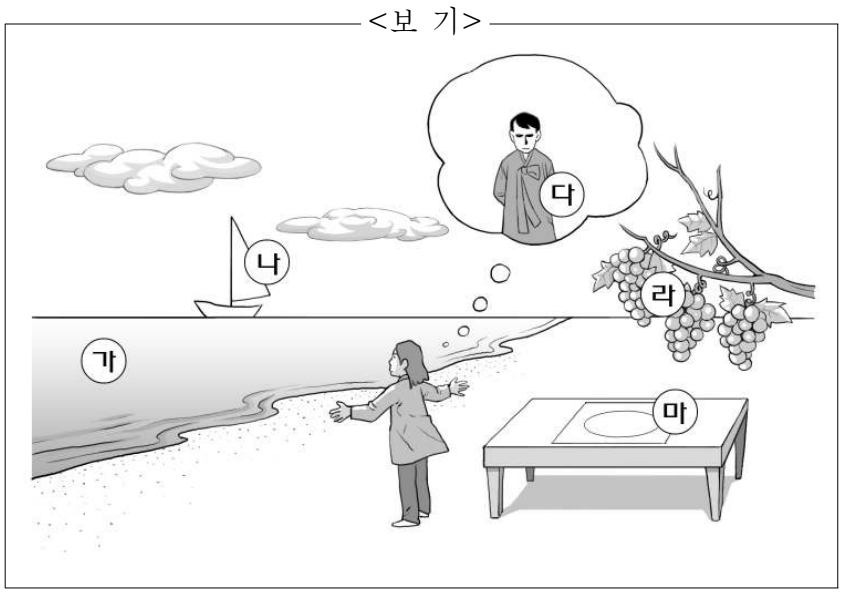
① (가)와 (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② (나)와 (다)는 부재하는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
③ (가)와 (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있다.
④ (가), (나), (다) 모두 절대자의 힘에 의지하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1. (가)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대화의 형식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특정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서 느끼는 모순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어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⑤ 작품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행을 배치하여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42. (나)를 감상하고 나서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을 마무리하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대상	색채		표현상 주안점
		청(靑)색 계열	백(白)색 계열	
①	㉮	○		'하늘'과 이어져 밝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한다.
②	㉯		○	'하늘', '바다'와의 색채 대비를 통해 더욱 선명하고 희망적인 느낌이 들도록 표현한다.
③	㉰	○		'하늘'이나 '청포도'와는 다른 색감을 주어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강조한다.
④	㉱	○		싱그러우면서도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한다.
⑤	㉲		○	깨끗하고 정성어린 느낌이 들도록 표현한다.

43. (가)~(다)를 감상한 후 선생님과 학생이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선생님 :** ㉠에서 '삼백예순 날'이라는 시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 생 :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정감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겠지요.

② **선생님 :** ㉡과 같이 '전설'과 '하늘'을 '청포도'와 연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 생 : '청포도'가 평범한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전설'과 하늘의 '꿈'이 담긴 매우 소중한 대상임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

③ **선생님 :** ㉢에서 '따 먹으면', '적셔도 좋으련'과 같이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 생 :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고, 소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④ **선생님 :** ㉣에서 '삐걱이는 나무 울음소리'를 '산뻐꾸기 울음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 생 : '삐걱이는 나무 울음소리'는 '당신'이 올 때 나는 소리이므로 화자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이기 때문이겠지요.

⑤ **선생님 :** ㉤에서 '신과는 상관없이' 달려가겠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 생 : 화자에게는 '당신'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겠지요.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학문하지 않고서는 사람다울 수 없다. 그런데 학문이라는 것은 이상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저 아비가 되어서는 사랑해야 하고,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해야 하고,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해야 하고, 부부가 되어서는 구별을 지켜야 하고, 형제가 되어서는 우애가 있어야 하고, 젊은이가 되어서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벗이 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따른 마땅함을 찾을 뿐이지, 현묘(玄妙)*한 데에 마음을 두어 기이한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은 사람은 본성이 가려져서 식견이 어두우므로, 꼭 글을 읽어서 이치를 연구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밝히고서야 행위가 바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에 있는 줄은 모르고 망령되게 뜻을 높고 멀게 하여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므로,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니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중략)…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우고, 성인(聖人)이 되기를 자기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대개 뭇사람도 성인과 그 본성은 같으니 비록 기질에는 맑고 흐림과 순수하고 조잡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꼭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그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면,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고서도 온갖 선(善)에 이를 터인데 뭇사람이 어찌 성인이 되기를 스스로 목표로 삼지 못하겠는가.

이런 까닭에 맹자는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한 것이라고 설명할 때에는 언제나 요순(堯舜)을 들어서 비유하였다. 맹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본성은 본디 착한 것이어서, 옛날과 지금,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구별이 없는데, 성인은 왜 특별히 성인이 되고 나는 왜 보통 사람인가. 참으로 뜻이 서지 않고 아는 것이 밝지 않고 행실이 두텁지 않은 까닭이다. 뜻이 서고 아는 것이 밝고 행실을 두텁게 하는 것은 다 나에게 있으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안연(顔淵)이 말하기를 "순(舜)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 누구든지 순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나도 또한 안연이 순과 같이 되기를 바라던 것을 본받으려 한다.

사람의 얼굴은 추한 것을 곱게 바꿀 수 없으며, 힘은 약한 것을 세게 바꿀 수 없으며, 키는 작은 것을 크게 바꿀 수 없으니, 이것은 이미 정해진 분수이므로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심지(心志)는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어두운 것을 어질게 바꿀 수 있다. 대체로 지혜로움보다 훌륭한 것이 없고 어짊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괴로워서 어질고 지혜롭게 되지 못하고 하늘이 내려 준 본성을 손상하는가. 사람이 이 뜻을 유지하고 굳게 물러서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무릇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하면서도 곧 노력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기다리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뜻을 세웠다 하나 실은 배움을 향하는 성의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내 뜻을 학문에 두었다면 실천하면 될 것인데, 왜 남에게 구하며 왜 뒷날로 미루겠는가. 뜻을 세움이 귀하다는 것은 곧 공부를 시작하여 물러서지 않는 까닭인데, 하는 것 없이 날만 보낸다면 어찌 성취할 수 있겠는가.

– 이이, 「격몽요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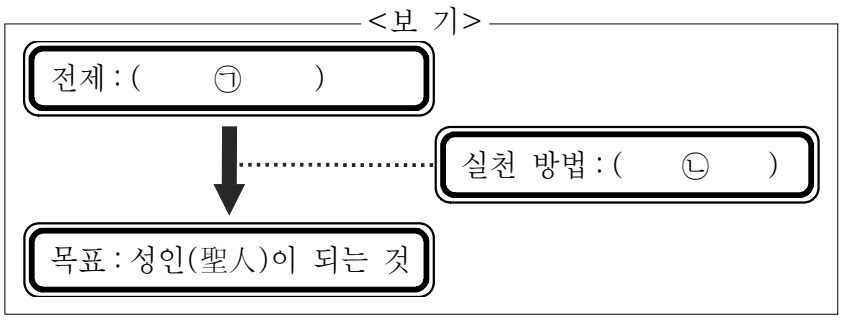
* 현묘 : 이치나 기예의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함.

44.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대상을 열거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일반인의 그릇된 자세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참조하여 45번과 4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4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은 경쟁을 즐긴다.
②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③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④ 인간은 새로움을 추구한다.
⑤ 인간의 성품은 본래 착하다.

46. ㉡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① 쥐를 잡은 솔개들아 배부르다 자랑마라.
맑은 강가의 배고픈 학이 부러워하겠느냐.
내 몸이 한가하고서는 살찌지 못한들 어떠랴. – 구지정
② 옛 성현도 날 못 보고 나도 성현을 못 보네.
성현을 못 뵈어도 행하던 길 앞에 있네.
행하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행하고 어찌할꼬. – 이황
③ 검으면 희다 하고 희면 검다 하네.
검거나 희거나 옳다고 할 사람이 전혀 없네.
차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듣지도 보지도 않으리라. – 김수장
④ 자네 집에 술 익거든 부디 나를 부르게나.
내 집에 꽃 피거든 나도 자네 청하겠네.
한평생 시름 잊을 일을 의논하고자 하노라. – 김육
⑤ 굴뚝새 작다 하고 붕새야 비웃지 마라.
구만 리 한없는 하늘을 너도 날고 굴뚝새도 난다.
두어라, 다 같이 나는 새이니 너나 그나 다르랴. – 이택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콩쥐가 감사의 부인이 된 것을 시기한 팥쥐는 같이 목욕을 하자며 콩쥐를 꾀어내어 연못의 깊은 곳에 데리고 가 밀어 죽이고 자신이 콩쥐 행세를 한다. 그 후 연못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핀 것을 발견한 감사는 하인에게 연꽃을 꺾어 별당 방문 앞에 꽂아 놓게 하고 애지중지한다. 콩쥐가 연꽃이 되었다고 여긴 팥쥐는 그 연꽃을 뽑아다가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웃에 사는 할멈 하나가 불씨를 얻으려고 감사 댁 안채로 들어왔다. 예전부터 감사 부인과는 친숙한 터라, 바로 연못가 별당으로 가서 아궁이에서 불을 떠가려 하는데,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니 불은 씨도 없이 꺼져 있고 난데없는 오색구슬이 한 아궁이 가득히 대굴대굴하였다. 노파는 구슬이 탐이 나서 허겁지겁 구슬을 모조리 치맛자락에 쓸어 담아 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는 남이 행여 알세라 하고 반닫이 속에 감추어 두었다.

그랬더니 천만 뜻밖에도 반닫이 속에서,

"할멈! 할멈!"

하며, 부르는 소리가 감사 부인의 목소리와 흡사하였다. 노파가 매우 놀라 반닫이 문을 열고 보니, 어찌된 까닭인지 감사 부인이 그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노파에게 반가운 기색으로,

"내가 본래 콩쥐라 하는 여자임은 김 감사와 혼인할 적에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거니와, 팥쥐 항상 나를 모해(謀害)하고자 벼르다가, 이번에 무슨 정이 깊었던지 나를 찾아왔다가 여차여차 되었노라."

하며 그 연못에 빠져 죽은 사연을 낱낱이 밝히고서, 다시 노파의 귀에다 입을 대고 여차여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노파는 이상도 하거니와 우선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앞서므로 머리를 조아리며 응낙하고 그와 같은 계획을 거행할 때 남한테 빚도 얻고 또 얼마간의 볏섬도 찧어 팔아서 돈을 장만하여 가지고 진수성찬(珍羞盛饌)으로 잔치를 베풀어 거짓으로 노파의 생일이라 일컫고, 노파는 몸소 김 감사를 찾아보고 공손히 아뢰었다.

"오늘은 소인의 생일이옵기에 변변치 못하오나 음식을 조금 준비하였기에 감히 사또의 행차를 청하오니 누추한 천인(賤人)의 집이오나 백성의 솟는 정을 생각하시고 잠시 들어오시면 박주(薄酒) 한 잔일망정 관과 민이 즐겨 볼까 하나이다."

하고 여러 번 청하였더니, 김 감사도 그 노파의 뜻을 가상히 여겨 바쁜 시각을 쪼개어 노파의 집에 행차하게 되었다.

노파는 본디 아전의 계집으로서 사또의 행차를 맞게 됨은 다시없는 영광인지라 매우 기뻐하였다. 게다가 동리 사람들까지 '감사가 행차하신다.' 하여 구경하러 모인 사람만도 자그마한 노파의 집터를 메울 지경이 되었다.

김 감사는 노파 집에 이르러 상을 받으니, 온갖 음식이 안목을 황홀케 할 만큼 없는 것이 없이 풍성하게 차려 놓은지라 감사는 크게 칭찬하여, 술을 따라 두어 잔 마신 후에 이것저것 맛을 볼 생각으로 [젓가락]을 들어 한 번 상을 구르니, 한 짝은 길고 한 짝은 짧은 것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마음속으로 노파의 소홀함을 괘씸하게 여겨 좋지 못한 기색으로 참다못하여 젓가락의 짝이 틀림을 나무랐다. 이 때 노파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홀연 병풍 뒤에서 사람의 소리가 있어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젓가락 짝이 틀린 것은 그렇게 똑똑히 아시는 양반이, 사람 짝이 틀린 것은 어찌하여 그토록 모르시나요?"
하는지라. 감사는 매우 놀랍게 여기면서 잠시 말을 멈추고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어 생각하여 보았으나, 아무리 궁리를 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겠더라.

'내외의 짝이 틀리다니 이 어쩐 말일꼬?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사람인가 귀신인가?'
하고 감사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동안 자기 아내의 행동에 종종 괴상한 일이 있었음을 갑자기 깨달으며,

'필연 콩쥐에게 무슨 일이 있음이렸다!'
하여 바삐 돌아가 알아보리라 하는 생각에, 진수성찬도 입에 들어가지 아니할 뿐더러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듯만 하였다.

…(중략)…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감사는 자기의 불찰(不察)이 부끄럽고, 한편 팥쥐의 소행이 괘씸하고 몹시 원통하였다. 곧 선화당으로 나가, 팥쥐를 잡아 문초(問招)하는 한편, 사람들을 시켜서 연못의 물을 빼게 하니, 과연 콩쥐의 시체가 웃는 낯으로 누워 있었다.

급히 건져 내어 염습(殮襲)*하려 할 때에 죽었던 콩쥐가 다시 숨을 돌리며 살아났다. 그럴 즈음 노파의 집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던 콩쥐가 홀연히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에 모든 관원과 읍내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이 신기한 변화에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이 한 가지로,
"팥쥐년은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고 떠들썩하게 말하므로, 드디어 감사도 그것을 알게 되매 문초를 더욱 엄히 하였다.

팥쥐는 모든 형벌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자백하니 ㉠ 감사는 크게 꾸짖으며 즉시 팥쥐에게 칼을 씌워 옥에 가두고, 사실을 조정(朝廷)에 보고하였다.

– 작자 미상, 「콩쥐팥쥐전」 –

* 염습(殮襲) :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옷을 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콩쥐와 노파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② 노파는 빚을 내면서까지 콩쥐의 부탁을 들어준다.
③ 감사는 팥쥐가 콩쥐 행세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④ 감사는 노파의 청을 받아들여 노파의 생일잔치에 참석한다.
⑤ 노파는 콩쥐가 오색구슬로 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간다.

48. <보기>의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보 기>

「콩쥐팥쥐전」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를 소재로 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이 유형의 설화는 유럽에서만도 500가지가 넘으며, 아시아에도 많이 퍼져 있다.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들은 대부분이 남녀 주인공의 혼인으로 끝난다. 그러나 「콩쥐팥쥐전」은 혼인 이후 (㉮)

① 주인공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②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덧붙여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③ 주인공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고 있다.
④ 주인공의 '죽음 → 재생 → 악인에 대한 응징'의 과정을 덧붙여 윤리적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주인공과 남편의 '오해 → 갈등 → 갈등의 극복'의 과정을 덧붙여 권위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49. 위 글에서 [젓가락]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사로 하여금 잘못된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소재이다.
② 감사를 소홀하게 대하는 노파의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③ 노파가 콩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④ 콩쥐가 감사에게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 활용한 소재이다.
⑤ 콩쥐가 감사만 알고 있는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소재이다.

50. 위 글을 읽은 독자가 ㉠을 평가할 때 인용할 수 있는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감탄고토(甘呑苦吐)
② 갑론을박(甲論乙駁)
③ 인과응보(因果應報)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⑤ 면종복배(面從腹背)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